

#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목차

- 1 서론
- 2 여성문학사 쓰기의 딜레마와 필요성
- 3 여성문학사의 범위와 서술방법론
- 4 여성문학 정전을 재심문하기
- 5 여성주의 정전의 내용과 범위
- 6 결론 - 정전 확정 이후의 과제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0864).

이 글은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문학사의 원천 자료 역할을 하는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이념,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여성문학의 계보만들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조감하고, 여성의 글쓰기 전통을 계보화하는 독자적인 여성문학사가 쓰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성문학사 서술방법론으로는 첫째, 여성을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이 교차되는 존재로 보고, 둘째, 여성문학이 균열과 저항, 불균질적인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경합하면서 독자적인 전통을 써 왔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다음으로, 필자는 여성문학의 기원, 형성, 발전의 궤적을 아카이빙한 자료 정전으로서의 ‘여성주의’ 앤솔로지를 제안한다. 앤솔로지 내용 및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문학 장르 경합하는 이질적인 여성 글쓰기와 목소리들의 부상과 쇠퇴, 그리고 여성문학사의 변전을 뚜렷이 보여주는 주요 작가와 작품의 등장 중심을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을 제안한다. (1)근대 초기 ‘조선의 배운 여자들과 개인의 등장’ (2)식민지기 ‘식민 현실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자 여성과 성찰적 지식인 여성의 등장’ (3)해방과 전후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경험과 ‘불온한 여성의 등장’ (4)개발주의 남성성을 비판하는 ‘지성을 갖춘 여성주체들의 등장’ (5)70년대 이후 가시화된 개발독재기의 젠더 통치에 대응하는 ‘중산층 여성의 히스테리적 글쓰기와 여성노동자의 체험적 글쓰기의 등장’ (6)민중민족운동 및 문학, 여성해방의식의 대두와 함께 민족, 민중과 젠더의 교차성을 심문하는 ‘운동으로서의 글쓰기의 등장’ (7)87년 체제 이후의 ‘성차화된 개인 주체’와 ‘여성적 글쓰기’의 다양한 양상의 출현. 이런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앤솔로지는 소설, 시, 희곡, 에세이, 선언문, 수기, 좌담회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 실천을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개방적 앤솔로지는 매 시기 사회변동뿐만 아니라 여성문학 장르 지식장, 글쓰기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점, 대표작가와 글쓰기 외에 각 시대별 글쓰기 전통의 저류에 흐르는 잔여물과 잉여를 찾아내어 여성문학 전통의 일부로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 기존의 정전 선택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안한 여성주의 앤솔로지는 앞으로 문학수용공동체, 해석공동체,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의 변동에 따라 다시 쓰이거나, 새로 쓰일 앤솔로지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핵심어: 여성문학사, 여성주의 정전, 대항정전, 여성글쓰기 전통, 계보만들기, 아카이빙, 페미니즘 리부트

## 1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 ‘문학사’는 부정과 심문의 대상이었다. “문학사라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부르주아 지배권력이 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 형태를 매개로 자기들의 권력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당화한 ‘민족문학사’라는 이름의 상상의 서사에 불과한 것”<sup>1</sup>이라는 인식이 국문학 연구 장에 본격 대두하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기존의 ‘대문자 역사’와 그것에 특유의 방식으로 얽혀 있던 한국문학사에 대한 회의와 해체”<sup>2</sup>를 선언하고, 기존의 민족주의-남성-엘리트 중심의 문학사가 배제한 ‘문학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복수’의 문학사 개념을 제안한다. 이런 동향을 반영한 『새 민족문학사 강좌1·2』(창비, 2009)는 풍속사와 여성문학, 아동문학, 대중문학, 북한문학 등 기존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하위주체들의 문학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하위주체들의 문학사는 여전히 큰 틀에서는 10년 단위의 문학사 기술, 시·소설·희곡의 장르 체계를 유지하는 문학사 기술 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성문학은 하위주체, 하위장르인 아동문학이나 대중문학과 같은 층위에서 별도의 장을 할애해서 서술된다. 이러한 배치방식은 문학사에서 문화사로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문학(사)’를 다루는 방식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성문학 연구 장 내부에서도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

- 
- 1 김명인, 「문학사 서술은 불가능한가-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민족문학사/쓰기」, 『민족문학사연구』 제43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10-12쪽.
  - 2 천정환·소영현·임태훈 외 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한국 현대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6-7쪽.

나,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90년대 여성비평/연구가 여성적 글쓰기의 미학적 특성과 그것의 윤리적 성격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2000년대에는 작가의 생물학적 성보다는 텍스트의 성별에 집중하고 이를 ‘타자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지칭하면서 성차에 기반한 페미니즘의 정치성이 거의 폐기되었기<sup>3</sup>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잉여성화’와 ‘과소여성화’의 시기를 거쳐 여성문학이 정치성과 현실적 맥락에서 소환되고 있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한국문학의 위대한 전통, 정전을 재해석하고 문학사를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이런 시도를 선언적으로 담은 저작이다. “한국문학(사)의 ‘문학성’을 논할 때 깊이 고려되지 않던 ‘성정치’의 문제를 유력한 ‘인식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주류문학사의 남성중심적 질서가 규정한 ‘문학(성)’을 거부하고, 여성의 읽기와 쓰기, 여성들의 지성과 실천을 한국문학(사)의 공동의 자산으로 가치부여”<sup>4</sup>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역설적으로 여성문학(사)에 대한 요청과 본격적인 여성문학(사)가 쓰일 필요성을 환기한다. ‘페미니스트 시각’이라는 선명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성의 시각으로 남성중심적 문학작품과 문학제도를 심문하거나, 여성문학의 쟁점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시기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다른 영역의 연구들을” 묶은, 통시적 계보 작성과 지도그리기를 전제로 하는 문학사(史)의 관점에서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저서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 글은 페미니즘 리부트로 촉발된 여성문학사/비평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은 아직 제대로 된 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사를 뒷받침할 원천자료를 가

3 김양선, 「탈주체, 탈중심 시대의 여성문학비평: 여성문학비평의 실천성 회복을 위한 제언」,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68호, 2008 봄, 97-103쪽.

4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8-10쪽.

5 “한국문학사를 지탱하는 텍스트 해석 원리, 제도적 조건, 권력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준거로서 ‘페미니스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 (책의) 시도는 ‘한국문학사’를 해방시키는 방식의 절단과 개입의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여성’을 다시 읽고 쓰는 일』, 문학과지성사, 2021, 21쪽) 여성문학사 서술방법론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페미니즘 문학 페다고지(pedagogy)<sup>6</sup>의 전범이 되는 여성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존 문학사 서술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는, 그렇다고 문학의 중심을 해체한 ‘복수’의 문학사도 아닌 독자적인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문학사의 원천자료 역할을 하는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이념,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여성문학사 쓰기의 딜레마와 필요성

최근 여성문학사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성문학사를 둘러싼 딜레마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

젠더는 산업화 시대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사회의 근본 모순을 재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논의 범주다. (...) 노동자나 농민은 (하층)민중의 삶을 그린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설명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체성’으로 환원되어 여성소설이 된다. 역사와 시대가 여성들이 쓴 소설에는 없다는 식이다. 이로 인해 문학사에서 여성소설은 리얼리즘, 모더니즘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범주가 되고, 언제나 분과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삽입’된다.<sup>7</sup>

6 페미니즘 페다고지란 젠더를 기본 개념으로 삼아 성적 차이를 이해하고, 성적 불평등을 낳는 사회 구조, 제도, 문화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평등과 민주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독려하는 페미니즘 교육이론이다. (엄혜진,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8, 7-8쪽, 10-11쪽) 2000년대 페미니즘의 퇴조. 대학강의실에서 페미니즘 강좌의 폐지, 총여학생회 폐지와 같은 백래시로 인해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입지가 축소되었으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대학원을 비롯한 신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을 배우고 연구할 텍스트와 교과과정, 강좌 개설 등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7 허윤, 「여성문학사라는 역설-강신재 소설을 통해 살펴본 여성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민족문학사연구』 제72호, 민족문학사학회, 2020, 221쪽.

즉 여성문학은 역사적, 사회적 범주로 나뉘지지 않는 비역사적 범주이면서도, 한국(근대)문학사 전체를 논의할 때 하나의 서술 '범주'로 소환/삽입되는 역설적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적 글쓰기, 여성성에 대한 긍정이나 가시화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계토화'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 계토화가 여성문학이 가진 근본적 역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처럼 여성작가와 텍스트에 여성-젠더 정체성이 항상 따라붙는 난점을 돌파할 방안으로 허윤은 “여성이 쓰고 여성이 읽는 여성문학이라는 협의의 정의를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재질문”<sup>8</sup>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하지만 여성-저자성과 정전화의 개념을 포기한 ‘페미니스트 시각’의 여성문학사 기술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만약 남성작가의 텍스트 생산물까지 포함한 페미니스트적 독해를 의미한다면 기존의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읽기’와 다를 바 없으며, 탈정전화의 시도라면 문화사나 풍속사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지연 역시 ‘성별’의 범주를 쉽게 버릴 수 없는 페미니즘 연구의 딜레마를 지적하면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을 본질화하여 대비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문학(성)’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인해 문학사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좋은 문학작품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기준과 비평적 해석의 중요성을 건너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학작품에 대한 섬세한 분별과 깊이 있는 독해의 중요성을 주장한다.<sup>9</sup> 예의 텍스트의 문학성과 사회비판의 정치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할지 딜레마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데 백지연은 “여성문학사를 ‘문화사’의 범주로 넓히고 한국근대의 여성문화 전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최근 페미니즘 연구의 동향은 문학비평이 어떤 방식으로 문학사 연구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를 짚어보게 한다.”는 모호한 진술에 그친다. 만약 문학비평이 텍스트의 미적 자질이나 가치를 따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문학연구, 문학사 연구와 ‘문학이라는 커먼즈’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이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놓치지 않는 텍스트의 미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두 필자의 여성문학사(연구)에 대한 문

8 위의 글, 226쪽.

9 백지연,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는 문학사」, 『창작과비평』 통권 184호, 2019 여름, 45-47쪽.

제의식은 여성문학(연구)가 처한 딜레마 상황을 지적하지만, 여전히 이 딜레마를 돌파하지 못 하는 형국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문학사가 대안/대항문학사이지만, 기존문학사가 있고, 여기서 빠진 것을 보완하는 의미의 ‘보충’적인 개념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자 한다. 즉, 여성문학사는 ‘복수’의, ‘서발턴’의 문학사의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흑인, 유태인, 노동자와 같은 다른 피억압집단(서발턴)은 사회적 변화와 집단적 연대에 따라 그 지위가 변할 수 있지만, 남녀의 구별은 생물학적인 것이어서 변할 수 없다. 여성은 여전히 타자화된 집단으로 남아있다.<sup>10</sup> 따라서 여성들만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은 다른 계급이나 서발턴의 문학사와는 다른 가치를 갖는다.

둘째, 남성 중심의 문학권력은 보편성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남녀의 경험 차이를 문학성이라는 질적 차이로 환원하였다. 이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글쓰기는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문학사에 진입, 등재되기 어려웠다.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정체성을 다룬 작품은 문학 정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 잊히거나 삭제되었다. 여성들은 문학사의 선배들이 이룩한 여성문학의 전통을 이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sup>11</sup> 여성작가와 작품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전통을 계보를 써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남성 중심의 출판과 비평 장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여성작가, 여성문학은 지적, 문화적 계보가 없이 개인의 ‘특출난’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지배적인

---

10 시몬 드 보부아르는 첫째, 여성은 인종, 계급, 민족, 종교, 국가별로 나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단결하기 힘들고, 둘째, 다른 서발턴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변화나 집단적 연대와 투쟁을 통해 억압-피억압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지만 ‘여성 그 생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여자’이므로 의존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배은경,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실존주의적 성찰-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정숙 편, 한길사, 2018, 298-299쪽)

11 이봉지, 「왜 여성문학사가 필요한가」,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4호, 한국프랑스학회, 2008, 7-12쪽.

문학장의 소수(자)로 계토화된다. 그나마 이 살아남은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의 특성은 남성 중심의 문학장에서 ‘보편적인’,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것들이다.<sup>12</sup>

따라서 여성문학(사)의 ‘독자적’인 전통을 찾아 서술하는 것은 단순히 그간 잊힌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복원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재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역시 여성문학사 쓰기에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적, 문화적, 문학적 맥락을 역사화/계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문학사의 보완재가 아닌, 독자적인 여성문학사를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 문학사의 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근현대 문학사의 권위있는 유산인 정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가능하다. 여성문학사는 여성작가의 발굴, 여성작가 작품 중심의 문학사 기술에 그치지 않고, “남성적 보편의 비평적 인식 틀의 해체와, 여성 작가/시인/비평가/독자의 문학적 활동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학사를 구축”<sup>13</sup>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 3 여성문학사의 범위와 서술방법론

‘여성문학사란 여성의 문학활동에 관한 역사이자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편한 문학사’이며, ‘문학활동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기억, 문학을 통해 구성되고 전달되는 여성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런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현대 여성문학사는 오랫동안 쓰이지 못했다. 일레인 쇼월터는 여성문학사가 쓰이지 못한 이유를 21세기 이후 해체주의 흐름 속에서 모든 문학적 판단은 상대적, 주관적,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남성적 문학 기준에 따라 여성작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여성작가들 사이에서도 위계를 정하고 이

---

12 박화성, 강경애를 ‘여성성 소설의 작가’, 최정희와 노천명을 여성성 구현의 작가로 구분하는 것, 리얼리즘적인 경향을 탈여성적인 것으로, 사적 체험에 기반을 둔 소설이나 수필을 여성적인 경향으로 규정하는 것 등은 문학 장의 특정 영역을 여성문학과 여성작가에게 할당하려는 지금까지의 전략이었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61쪽)

13 조연정, 앞의 책, 28쪽.



들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획하는 중심만들기 내지 위계화를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게다가 미적 구분보다는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학적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나 사회사적으로 관심이나 분석의 축이 옮겨가면서,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백과사전적 선집이 작가, 작품들 사이에 선별, 구별, 판단을 행해야 하는 문학사를 대체해 왔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쇼월터는 여성(문학)의 전통(female tradition)을 세우기 위해 여성의 글쓰기를 선정, 구별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이와 같은 쇼월터의 시각은 백인-중산층-엘리트 여성 중심의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의 시각을 전제로 한 여성의 글쓰기 전반을 수집하는 백과사전적 기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쇼월터가 제시하듯 여성문학의 ‘미학’이나 ‘가치’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선택, 선별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잠정적으로 여성문학의 전통을 여성의 글쓰기 전통의 역사로 확장하면서도, 여성의 정체성과 경험이 지닌 미학적 가치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전제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발간된 한국의 근현대 여성문학사는 가령 근대초기, 식민 시기와 196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라는 여성문학의 탄생기나 흥성기 같은 특정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최정희와 강경애, 모운숙과 노천명, 박경리와 강신재, 김남조 등 대표 작가들에 쏠려 있다. 여성의 문학활동 전체를 ‘일관된 시각에 따라’ 총람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여성문학 장과 제도 연구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up>15</sup> 이와 같은 단절과 결락 지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현대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문학의 탄생,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조감하고, 여성의 글쓰기 전통을 계보화하는 독자적인 여성문학사가 쓰여야 한다.

---

14 이상 Elaine Showalter, *A Jury of Her Peers: Celebrating American Women Writers from Anne Bradstreet to Annie Proulx*, Vintage Books, 2010를 참고했다. 쇼월터의 입장은 영미문학의 전통교본인 *The 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이 여성의 글쓰기 전통을 포함한 종합의 원칙을 택한 것과는 다르다.

15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남성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의 질서에 한편으로는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여성들의 지적 전통과 말하기, 글쓰기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취할 것인가?

첫째, 여성이 근대 시민이자 글쓰기의 주체로서 성별화된(gendered) 위치에서 근대성, 계몽주의, 식민주의, 민족/국가주의, 반공주의, 진보와 발전주의와 같은 중심 담론과 경합하고 각축하거나, 혹은 이 중심 담론으로부터 탈주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서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현대 여성문학사 서술을 통해 성별화된 ‘여성’이자 ‘국민’으로서 때로는 국민의 범주에 포섭되고, 또 때로는 배제되거나 보조적인 위치를 할당받은 여성작가와 여성작품의 정체성 투쟁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여성 범주와 여성의 글쓰기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과 경합하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의미화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를 추구해 온 한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이 단일한 범주로 정의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이 교차되어 있는 복합적 존재라는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다.<sup>16</sup>

둘째, 여성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연속성과 발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 직선적인 진보의 개념, 소위 보편성에 기반한 문학사 서술에 저항하는 것이 여성문학사의 테제임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여성문학사는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의 문학전통과, 또 한편으로는 이 남성 중심의 문학전통 및 문학 장에 편입되어

16 교차성 페미니즘은 이런 시각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는 데 유효한 방법론이다. 교차성은 ‘정체성의 범주’를 역사적이며, 맥락에 따라 특수성을 띠는 역동적인 것이자,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polysemic) 사회구성물’로 이해한다. 여성 공통의 경험이 있다는 식의 단일한 본질주의적 시각보다는 젠더, 인종(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나이, 시민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보는 것이다. 김보명은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차성 이론이 ‘여성’을 해체하지도, ‘여성’을 무한히 다원화하지도 않으며, ‘지금 이곳’의 역사적 현실로 존재하는 여성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질문한다고 주장한다. (김보명,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교차성×페미니즘』, 김보명 외, 도서출판 여이연, 2018, 96쪽) 이런 관점은 여성을 탈주체, 탈중심, 다원적 주체 중의 하나로 보는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것이다.

여성 글쓰기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주류 여성문학사와도 다르게 쓰여야 한다. 여성문학 내부의 위계나 질서에도 의문을 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문학은 균열과 저항, 불균질적인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경합하면서 독자적인 전통을 써 왔다. 가령 ‘여류’작가의 수는 많아졌지만, 기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구수문학’으로 치부되어 온 60년대 작가와 작품들이 기실 퇴행과 전복, 포섭과 배제의 역동성을 띠었음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여성문학 장과 관련하여 규명하거나, 민족민중운동과 접속하면서 여성해방의식을 뚜렷이 드러냈던 80년대에도 이 경향으로 수렴되지 않은 대중소설이나 여성의 광기를 다룬 글쓰기가 있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다.

셋째, 페미니즘의 오랜 이슈인 ‘차이’와 ‘평등’, 민족, 계층, 지역, 젠더의 교차성이 어떻게 글쓰기에 반영되었고, 이 반영이 해당 시기 페미니즘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를 문학사 서술의 한 축으로 삼을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야 한다는 근대 초기 ‘평등’ 이념, 국가(민족)주의에의 협력과 식민 여성주체의 정체성 투쟁이 교차하는 ‘차이’의 정치학과 글쓰기는 해방과 전쟁, 국가재건기의 국가주의, 7,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평등’ 이념, 90년대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의 부상으로 집약되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나타난다. 현실과 조응하는 여성 글쓰기의 계보는 이렇듯 차이와 평등 이 두 좌표를 축으로 진자운동을 하면서, 직선이 아닌 나선형을 그리면서 여성 글쓰기의 계보를 써왔다. ‘나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차이’와 ‘평등’이든, 포섭과 저항이든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행시 지배적인 경향과 그렇지 않은 경향이 경합하면서 겹치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잔여적 경향 역시 당대 여성문학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설수준의 문학사에서 차용하는 10년 단위, 대표작가와 군소작가를 구별하고, 장르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형성, 발전, 지배적인 사회질서, 문학 질서와 경합하는 이질적인 여성 글쓰기와 목소리들의 부상과 쇠퇴, 그리고 여성문학사의 선회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작품의 등장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근대초기-식민지 시기-포스트 식민 시기를 통시적으로 서술하되 여성의 삶과 경험, 지위에 영향을 미친 사회 변동을 한 축으로, 민족, 계급, 젠더의 교차성을 반영한 여성의 다양한 글쓰기 실천과 그 변전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비역사적, 비정치적인 ‘정체성’으로 환원되어 온 여성들에게 표현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찾아주고, 남성중심의 문학사에서 지극히 비문학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사적인 것으로 폄훼되어 온 여성의 글을 적극적으로 읽고 평가함으로써 문학사 서술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 4 여성문학 정전을 재심문하기

‘문학사는 언제나 정전의 역사였고, 정전의 역사는 또한 언제나 정전 변천의 역사’였다.<sup>17</sup> 문학사 쓰기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작가와 작품이고, 작가와 작품 중에서도 각 시대의 변천을 가늠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취택해야 한다. 이 취택된 작품을 우리는 정전이라 불러 왔다. 한편 정전비판은 정전을 특정계층의 이해관계의 산물로 보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전을 수정하고 개방하고 확장하려는 전략을 수반한다. 문학성 자체를 심문하면서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의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 계급, 성, 인종 범주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집단과 소수자들의 경험과 가치를 성찰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전의 유동성, 복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정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시기가 상이한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달라지고 변화하는, 정전화-탈정전화-재정전화를 거듭하는 ‘복수’의 정전 ‘들’이다.<sup>18</sup>

이 정전의 유동성과 관련하여 후기 근대에 의제가 되었던 것이 여성문학 정전이나 소수자의 정전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전통에서 여성작가들의 정전화가 미약했던 이유는 여성작가들이 자료정전에서조차 제외되고 남성적인 미학적 기준과 해석정전이 관철된 데 있다.<sup>19</sup> 앞서 여성문학사 서술이 필요한 것처럼 여성

---

17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69쪽.

18 위의 책, 194쪽.

19 자료정전은 잘 알려져 있거나 독자들에게 사랑받거나 상관이 없이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질료성을 가진 모든 텍스트를 일컫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의 작가나 작품을 의미한다. 해석정전은 정전에 내포된 기준 및 가치, 작품해석이 역사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료정전이 핵심정전이나 대표정전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해석정전의 작용

주의 정전이 필요한 이유이다.

릴리안 로빈슨은 남성 중심의 정전에 대한 수정 작업이 처음에는 정전이라는 제도 내에 여성의 작품을 포함시키는 것, 그 다음에는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온 작가와 작품을 발견하고 재출간, 재평가하는 작업, 소위 여성 중심의 대항 정전(counter-canon)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 발굴되거나 가치가 입증된 여성의 작품을 평가할 때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준 자체가 본질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므로 수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sup>20</sup> 후자는 ‘문학성’ 자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일레인 쇼윌터가 여성전통을 가정소설, 감상주의 소설에서 찾고, 이를 작가와 독자 사이의 전복적 공모로 파악하는 것, 즉 대중소설에 기반을 둔 여성문학 전통을 내세우거나, 샌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보다는 주요 여성 작가들에 초점을 맞추되, 일탈, 전복 같은 주제로 일관성 있게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sup>21</sup> 이처럼 여성문학사와 여성주의 정전은 가정소설, 감상주의 소설, 선정소설, 고딕소설과 같은 대중 장르를 여성문학 전통의 일부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통해 탈정전화, 재정전화의 작업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편지, 일기, 일지, 자서전, 구술역사 등도 여성의 의식과 표현을 담은 대항 정전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22</sup>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발간된 한국의 여성문학 정전에 해당하는 여성문학 앤솔로지는 이런 대항 정전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 했다. 시기적으로 근대 초기와 식민지 시대에, 장르로는 소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한국여류문학인회의 『한국여류문학전집』 역시 기존 문학 앤솔로지의 관행대로

---

때문이다. 해석정전은 주석과 해제, 대중비평, 교과서, 문학사에서 강조된 작가와 작품을 통해 고착된다. (위의 책, 86-87쪽. 91쪽)

20 릴리언 S. 로빈슨,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텍스트의 반란-페미니스트가 정전에 반기를 들다」,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일레인 쇼윌터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41쪽.

21 위의 글, 145쪽.

22 위의 글, 150쪽.

소설, 시, 수필로 구성되었다.<sup>23</sup> 당시 문학장에서 여성-문학권력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나마 맥이 끊겼던 여성문학 앤솔로지 발간은 8·90년대 페미니즘 운동, 여성문학의 부상과 함께 재개되었다. 90년대 앞뒤로 발간된 여성문학 앤솔로지가 그러하다. 엄혜숙, 오현주 편, 『유리파수꾼: 여성작가가 쓴 여성문제 소설 모음』(동녘, 1989), 서정자, 김경수 편, 『한국여성소설선』 I (1910~1950)과 II (1951~1990), 송지현 편, 『길찾기-소설로 보는 여성문제』(1991), 송명희·이태숙 편, 『페미니즘 소설 정전 읽기』(푸른사상, 2002)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유리파수꾼』은 식민지 시기 박화성의 「추석전야」, 강경애의 「소금」부터 80년대 이경자, 김향숙의 여성문제 소설까지 수록함으로써 ‘여성해방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담고 있다. 『길찾기-소설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작가 작품의 발굴과 소개, 연대기적 편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성문제의식의 고취와 해결전망의 모색을 근거로 작품을 선별하고, 특히 다양한 계층의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취택하고 있다. 이 두 앤솔로지는 성과 계급의 교차성을 선별의 기준으로 삼고, 여성문제 인식뿐만 아니라 전망의 제시라는 80년대 문학의 규약을 따르고 있다. 예의 문학정전이 사회적 가치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단의 여성화’, ‘여성문학의 상품화’와 같은 비평계의 백래시로 인해 끊겼던 여성문학 앤솔로지 불이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일고 있다. 『경희, 순애 그리고 탄실이-신여성의 탄생,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작품선』(교보문고, 2018), 『신여성, 운명과 선택-한국 근대 페미니즘 문학 작품선』(에오스, 2019), 『근대여성작가선』(문학과지성사, 2021)은 책의 키워드에서 드러나듯 근대-신여성에, 장르는 소설에 한정되어 있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부상한 여성문학에 대한 대중-독자의 관심, 출판사의 전략이 근대 초기부터 식민지기로 정향되어 있는

23 식민지 시기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구성과 이념에 대해서는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손성준, 「‘여류’ 앤솔로지의 다시 쓰기, 그 이중의 검열 회로: 『여류단편결작집』(1939)연구」, 『코기토』 제8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60년대 『한국여류문학전집』의 여성문학사와 제도에 대해서는 김양선의 앞의 글.; 김은석, 「1960~70년대 ‘여류’의 아비투스과 『여류문학전집』의 연합 정치」,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을 참고할 것.

현상이 저작권을 의식한 출판시장에 기인한 것인지, 페미니즘 대중 독자를 위한 문학 페다고지가 설정한 목표가 우리 근대여성문학의 탄생과 형성기에 해당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통한 교육인지는 더 탐구할 사항이다. 다만, 최근의 여성문학 앤솔로지 역시 시기나 장르, 작가, 작품을 볼 때 근현대여성문학의 전통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성문학의 기원, 형성, 발전의 궤적을 아카이빙한 자료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근현대여성문학의 독자적 전통을 총람하기 위한 일차 작업으로 여성작가와 작품, 나아가 글쓰기의 발굴에 의의를 둔다는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정전이 아닌 ‘여성주의 정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정전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이성애자-남성(지식인) 중심의 한국문학 질서를 상대화할 수 있지만, ‘여성해방적 시각’이라는 통일된 관점을 택할 경우 여성글쓰기 내부의 다양한 층위, 가령 동의와 협력, 배제와 균열의 지점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정전, 성차를 교란하는 퀴어 정전이 미래에 도래할 정전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전은 여성주의 정전이다. 여성의 글쓰기 실천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통사적으로 통찰하는, 역사화 작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아카이빙 작업은 여성문학앤솔로지, 여성문학사라는 지도그리기가 박제된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들의 삶의 위기에 응답하는 파편들을 과거에서 걸러내어 수집하여 재배치하는,<sup>24</sup>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성문학 앤솔로지는 ‘복수’의 정전 중의 하나이거나 기존 정전의 재구성이 아니라 기존 문학정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항정전’이자, 기존 여성문학정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서 여성문학의 전통을 총람하고 매핑(mapping)하는 ‘독자적’인 정전이다. 이 여성문학 앤솔로지는 기존 남성작가와 문학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독자적인’ 정전 만들기이면서 여성의 시각<sup>25</sup>으로 문학의 전통, 지

24 이명호, 「30년 후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길버트와 구바의 19세기 여성문학사 서술과 여성문학 앤솔로지 검토」,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8쪽.

25 여기서 ‘여성의 시각’은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한 듯 보인다. 필자는 여성의 시각을 생물학적 특성으로 환원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와 문학질서와 경합하면



적 전통을 심문하고 재정립함으로써 여성의 문학과 글쓰기, 나아가 여성의 지적 전통을 밝히는 전범이 될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여성문학 앤솔로지는 주요 여성문학, 여성작가, 작품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성사, 자기표현의 역사, 그리고 작품에 재현된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읽고 쓰고 서로의 작품과 활동의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있었음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 5 여성주의 정전의 내용과 범위

여성주의 문학 정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성문학의 역사를 계보적으로 총람하면서 어떤 작가, 어떤 작품과 글쓰기를 수록할 것인가는 여전히 난제이다. 기존의 여성문학 정전을 재심문하면서 작가-작품-독자 커먼즈가 동의하는 여성주의 문학 정전의 내용과 범위,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문학 앤솔로지에 수록되는 작가나 작품 선별 시 하나의 관점이라는 접근법을 경계한다. 가령 전복성과 균열, 틈새, 감정과 정동에 주목, 이를 여성적 특성이라든가 여성성과 등치시키는 것은 여성문학 전통의 한 축일 뿐이다. 자기 계층의 정체성과 모순을 성찰하는 지적 글쓰기, 여성의 일과 노동에 드리워진 중층적 모순을 포착하는 폭로와 분노의 글쓰기, 해방과 전쟁, 혁명과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의 분기점에 포섭되거나 저항하는 양가성의 글쓰기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여성’, ‘여성적 글쓰기’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성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특정 계급과 민족,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있다. 개별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이 사회적 범주들의 교차성과 횡단성을 인정하려면, 여성(성)이 본질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의 존재라는 열린

---

서 여성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정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26 김양선, 앞의 글, 54쪽.



시각을 취해야 한다. 이 과정 중의 여성(성)이 지닌 개방성과 가변성, 민족, 계급,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이 교차되어 있는 복합적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여성문학과 글쓰기의 전통을 좀더 풍부하게 답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별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학 장이나 여성문학 장에서 ‘정전’으로 확정된 작가와 작품 외에 주변화되어 왔던 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속적 전통’이나 ‘여성의 문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중적인 장르인 가정소설이나 감상주의 소설, 여성 고딕소설, 여성 선정소설을 여성의 ‘고급’ 문화와 나란히,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여성 전통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편지, 일기, 일지, 자서전, 구술 역사, 개인의 시 등도 여성의 의식과 표현에 대한 증거 자료”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27</sup> 필자 역시 기존 문학 앤솔로지의 공고한 장르체계나 문학성의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 문화사적, 사회사적 자료로 여겨질 수 있는 글쓰기와 구술 자료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sup>28</sup> 하지만 다양한 글쓰기 실천을 고려하면서도 ‘미학적’ 특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때 이 ‘미학적’이라고 하는 것의 준거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난감한 지점이다. 테리 이글턴의 말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문학작품이나 전통 같은 것은 없다. ‘가치’는 타동사적인 어휘다. 가치가 타동사적이라는 말뜻은 특정한 상

27 릴리언 S. 로빈슨, 앞의 글, 149-150쪽.

28 김은하는 여성문학 정전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글에서 필자가 기존에 주장했던 “다양한 여성적 글쓰기 실천을 포괄하는 ‘종합’의 원칙”(김양선, 「한국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만들기와 번역-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61쪽)에 동의하면서, “일기, 편지, 수기, 독자투고문, 비평문, 잡지창간문, 좌담, 팸플릿 등 여성사의 의미있는 글쓰기 실천 사례”들을 포함하고, “단편소설 중심의 작품선정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장편의 경우 발췌 수록하는 형식을 취해” 여성문학 독자들의 경험을 포괄함으로써 여성 표현의 역사의 일람하고, 여성문학의 하위문화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은하,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80-81쪽.

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있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다.”<sup>29</sup>라고 한다. 즉 문학과 정치, 문학과 사회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상대적이라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한국’ 여성문학 정전과 관련된 ‘가치’는 내재성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보편적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를 추구해 온 한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매 시기 글쓰기 주체와 독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성원에게 의미있는 작품들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선정 기준을 취한다면 장르서열주의에서 주변적인 장르로 밀려났던 에세이나 수기와 같은 글, 좌담과 같은 말하기도 앤솔로지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시기 여성들이 행했던 다양한 글쓰기 실천들, 가령 근대 초기 여성들이 신문에 기고한 독자투고, 여자교육을 촉구하는 글, 여성잡지 창간사, 8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수기 등 자전적 글쓰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기존문학 전집의 공고한 장르체계나 문학제도가 구축해 온 완강한 문학성을 넘어서는 것은 문학(성) 중심의 견고한 주류 문학사를 극복한 대항정전으로서의 여성문학 정전<sup>30</sup>의 취지 내지 의의에도 부합한다. 문학작품의 문학주의라는 자명성을 넘어 앞서 언급했듯이 글쓰기 주체와 독자 공동체가 공유해 온, 그리고 공유해야 할 텍스트를 선별해야 한다.

셋째, 앞의 기준과 연동하여 특정 여성작가의 대표작을 장르적 관행에 따라 선별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개방적 관점을 취한다. 가령 근대 여성(해방)의식과 글쓰는 주체의 탄생 면모를 밝히려면 여성이 주체가 되어 발간한 잡지 창간사나 선언문, 나혜석의 소설 「경희」와 사적 고백의 양식이자 여행기인 「이혼고백서」 같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기, 페미니즘 정동과 전복의 글쓰기로 김승희의 페미니즘 시와 초기 에세이를 함께 묶기,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체험과 글쓰기’

29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26쪽.

30 교차성 페미니즘 이론가인 안잘두아(Gloria E. Anzaldua)가 편집에 참여한 앤솔로지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에서도 앤솔로지에 편지, 시, 녹취록, 사적인 대화, 인터뷰 등을 포함하고 있다. Cherríe L. Moraga, Gloria E. Anzaldúa ed.,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5.

로 박경리와 최정희의 단편뿐만 아니라 장편소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대중 장르와 여성독자와의 정서적, 지적 유대를 정전의 목록에 넣기, 여성해방문학비평과 좌담회 등을 목록에 넣음으로써 한국근현대 여성문학논쟁을 역사화하기가 있다.

넷째, 앤솔로지 수록 텍스트가 포괄하는 시기는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총괄하는 게 원칙이겠으나, 문학사적 평가를 고려하여 90년대까지를 다룬다. 근대 초기 글쓰기는 ‘여권통문’과 찬양부인회의 ‘애국가’부터 시작한다. 여성이 온전한 하나의 인간임을 주장하면서 여성도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개명 진보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권통문’, 민족-국가라는 대주체와 여성 일반을 등치하는 ‘애국가’와 같은 글은 계몽적 글쓰기의 젠더적 전유이자, 당시 3%에도 미치지 못했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류계층의 여성들이 여성동성사회의 의제를 대표해 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텍스트의 배치는 지금까지 한국근대여성문학사를 단편적으로 서술한 글이나 책에서도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부터 시작하는 여성주의 앤솔로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90년대까지 보는 이유는 최근 여성문학(사) 연구가 90년대까지 확장된 점,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페미니즘 비평과 연구장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작가군과 작품이 두터워진 ‘여성적 글쓰기’의 시대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지배적인 사회질서와 문학 장르 경합하는 이질적인 여성 글쓰기와 목소리들의 부상과 쇠퇴, 그리고 여성문학사의 변전을 뚜렷이 보여주는 주요 작가와 작품의 등장 중심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 신문과 여성잡지 등 공론장에 글을 읽고 쓰는 여자들이 출현한 근대 초기의 특징은 ‘조선의 배운 여자들과 개인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의 출발기이기도 한 이 시기에, 기존의 근대문학사 서술에서 축출되었거나 폄하되었던 여성작가들은 계몽적, 정론적 글쓰기와 문학적, 미적 글쓰기를 횡단하면서 ‘여성도 작가’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근대 여성문학과 글쓰기의 출발을 알리는 작가와 작품으로는 여성동성사회의 의제와 민족과 국가의 문제를 함께 풀어낸 「여권통문」, 근대적인 여성 개인의 등장으로는 ‘여성도 사람’이라는

젠더화된 계몽(성)을 예각화 한 나혜석의 「경희」와 「노라」를 배치할 수 있다. 근대 여성의 글쓰기 실천과 저자성의 범주를 확장한다면 『신여자』 창간사를 배운 여자들의 글쓰기 장의 출현과 연동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시기, 1930년대 여성문학은 계급-민족-성의 교차성을 고민하고, 이의 형상화를 통해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 근대여성문학의 형성기였다. 식민 현실에 대응하는 여성 주체(성)의 등장을 사회주의자 여성과 성찰적 지식인 여성의 등장 두 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전 시기 개인의 각성과 계몽에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여성해방에서 변혁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뚜렷하게 글쓰기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작가와 작품으로는 박화성의 「추석전야」, 강경애의 『인간문제』, 임순득의 ‘부인문학론’를 들 수 있다. 30년대 중반 이후 문학 장이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여성 주체의 반응은 사랑과 결혼제도를 성찰적 지성으로 해부하는 지식인 여성, 민족이나 계급, 사회주의라는 거대 담론과 거리를 취하면서 여성성, 모성성의 경험이나 윤리를 추구하는 여성, 선택멘털리즘을 여성성으로 재정위하려 한 시적 모험들로 나타났다. 최정희와 지하련, 노천명의 글쓰기를 이런 변화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시기, 해방과 전쟁은 분단체제가 시작되면서 식민지 시기와는 다른 남한 여성문학이 시작된 시기이다. 해방부터 한국전쟁, 포스트 한국전쟁기 여성문학을 흔히 여성문학의 침체기라고 하지만, 여성작가들이 시대와 정치 현안에 적극 반응하면서 문학적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로 재평가할 수 있다. 해방과 전후 여성문학 장의 특징은 소위 ‘신진’으로 일컬어지는 강신재, 한무숙, 박경리가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경험과 인식’을 쓴 것이다. 전후 국가재건 시기 지배 담론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불온한 것으로 여겨 배제했다. 이에 대응하는 여성주체를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위반하는 실존적 여성주체(강신재, 한무숙 소설), 성녀와 마녀의 이분법을 깨는 여성주체, 전후 현실을 이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여성주체(박경리)로 나뉘볼 수 있다. 시에서도 전쟁의 파괴성을 생명의식으로 부정, 비판하는 시적 주체(김남조)가 등장하게 된다.

네 번째 시기, 남한 여성문학이 독자적인 여성문학 장과 제도를 형성한 시기가 60년대이다. 본격적으로 ‘여류’문학의 죽음이 가시화되고, 앞 시기의 불온한 여성들이 물러나면서 지성을 갖춘 여성주체들이 대거 등장하는 여성주의 문

학으로의 갱신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비판적 지성과 개인의식’을 획득한 여성주체들은 4.19로 대표되는 시민, 청년의 혁명의지와 이의 퇴조 이후 남성들이 선택한 길과는 다른 길을 간다.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개발주의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이 지식인 여성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여성시의 여성적 감정의 목소리는 앞 시기에 이어 지속되었다. 이런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가로 비판적 지식인 여성주체를 입상화한 박순녀, 남한 자본주의와 남성성의 허약성을 폭로한 손장순, 여성적 정서를 구축한 김남조를 들 수 있다. 여성문학 제도의 측면에서는 ‘한국여성문학인회’가 등장하고, 『여원』, 『여상』 등 상업적 여성매체를 기반으로 여성작가들의 대중장편소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 시기, 개발독재기의 젠더 통치가 가시화된 1970년대 여성 글쓰기의 대표적 경향으로는 ‘중산층 여성의 히스테리적 글쓰기’와 ‘여성노동자의 체형적 글쓰기’의 성행을 꼽을 수 있다. 국가주의 가부장제의 전일적 지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강화 속에서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이후 남성적 질서에 포위된 여성의 경험과 신체를 병리적으로 그린 히스테리적 글쓰기는 가부장 사회에 대한 부정과 거부라는 뚜렷한 성격을 띠게 된다. 문학 제도 안에서 여성들의 글쓰기가 중산층 여성의 히스테리적 신체를 경유해 나타났다면 제도 밖에서는 노동 통제의 문제를 체험적 목소리로 비판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와 같은 글쓰기가 있었다. 이 여성주체의 목소리와 글쓰기는 공론장에서 성별, 계층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들을 가시화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양식에서도 소설과 시 중심성을 깨면서 주변의 양식을 문학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낳았다. 시에서 세대교체의 징후는 강은교와 김승희의 등장으로 나타났으며, 김자림의 「화돈」이 본격적인 여성주의 희곡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여섯 번째 시기, 노동운동을 비롯한 조직적인 사회운동과 민중민족문학론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80년대에는 민족민중문학과 페미니즘의 교차성 내지 민족, 민중, 젠더의 교차성이 여성문학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운동으로서의 글쓰기와 여성해방 의식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모순을 모성과 몸의 기억으로 서사화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민족, 민중운동과 여성의 교차성을 선언적으로 그리면서 여성주체의 재현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던 윤정모의 「고삐」, 그리고 민족민중운동과 여성해방 의지를 운동의 관점에서 시화한 고정희와 여성(성)의 비루함과 전복적 측면을 시화한 최승자의 출현, 70년대에 시작된 여성주의 의식을 심화하거나(정복근) 여성운동의 차원으로 확장한(여성문화 큰잔치 연희마당) 희곡들을 이 시기 여성문학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성』, 『또하나의 문화』 등 페미니즘 저널이 등장하면서 여성해방문학비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이후 여성문학 비평의 전범을 제공하였다.

일곱 번째 시기, 87년 체제 이후의 여성문학은 민족, 민중문학이라는 거대 서사가 사라진 자리에 그로 인해 억압되었던 것이 회귀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운동과 민중 집단주체가 견인했던 변혁의 열기가 사라지면서 성, 사랑, 욕망 등 사적인 영역, 일상의 영역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일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젠더적으로 정의한다면 ‘성차화된 개인 주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양상의 ‘여성적 글쓰기’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87년 체제 이후, 90년대 여성문학은 ‘여성적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더 이상 계토화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한국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해, 그것을 견인했던 시기이다. 여성작가군의 증가와 함께 대두된 성차화된 개인주체의 여성적 글쓰기를 몇 가지 경향으로 추릴 수 있다. 여성 후일담으로 불리는 80년대 민중운동에 대한 젠더화된 기억과 애도의 글쓰기(최윤, 공지영, 신경숙), 모성적 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공선옥, 나희덕, 허수경), 여성적 욕망의 추구하고 사랑의 탈낭만화(전경린, 은희경, 한강), 탈젠더화된 포스트 개인의 등장(배수아)을 9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몸에 대한 사유와 전복적인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은 시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박서원과 이연주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근대 초기부터 90년대까지 여성문학과 글쓰기를 목록화하고 아카이빙할 때 사회현실과 문학 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에 응전하는 여성주체(성)의 부상과 쇠퇴, 여성문학 전개의 변곡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앞서의 제안을 염두에 두고 시기별 특징과 작가와 작품 목록을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앤솔로지와는 달리 소설, 시, 희곡, 에세이, 선언문, 수기, 좌담회와 같은 다양한 글쓰기 실천을 포괄하도록 했다. 얼핏 언

급된 시기와 작가, 작품이 10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고, 나혜석, 강경애, 강신재, 박경리, 그리고 노천명, 모운숙, 김남조로 이어지는 ‘대표’ 여성작가들의 계보를 작성하는 기왕의 틀을 완전히 지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문학 장르 지식장, 글쓰기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점, 대표작가와 글쓰기 외에 각 시대별 글쓰기 전통의 저류에 흐르는 잔여물과 잉여를 찾아내고 이 역시 여성문학 전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 기존의 정전 선택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 6 결론-정전 확정 이후의 과제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은 매 시기 작품 없는 작가라는 ‘여류’작가에게 씌워진 오명에 맞서 글쓰는 여자로서의 저자성을 확보하려고 고투했으며, 여성의 삶과 경험을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형상화해왔다. 이런 여성문학의 역사에 우리는 응답할 때가 되었다. 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가 구체적인 답이 될 것이다. 문학사나 정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영향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작가들 간의 연관관계와 전수를 총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작가-독자 커먼즈가 함께 만들어가는 독자적인 여성문학사의 필요성과 내용, 그리고 여성주의문학 앤솔로지의 이념과 시대구분의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여성문학 선집 봄은 “지금 재현의 문제는 단순히 쓰는 이(작가)가 세계를 테스트 안에 형상화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독자들이 문예 공론장에 대거 유입되고 발화하기 시작한 상황”, “문학장을 향해 직접 자신을 발화하고 욕망을 주장하기 원하는 새로운 독자들의 등장”<sup>31</sup>과도 관련이 있다. 이 작가-독자 커먼즈에게 여성문학과 글쓰기의 역사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발화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문학 페다가지의 출발점이자 원천자료인 앤솔로지가 발간되더라도 그것이 종착점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이천년대 초중반

31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 대의의 시간」, 『문학은 위험하다-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19, 257-258쪽.

한국문학선집/전집 발간이 창작과비평, 문학과지성 등 메이저 출판사에서 봄을 이뤘을 때 이미 “작품 이해의 지침과 비판의 근거가 될 만한 정밀한 텍스트 비평과 주석 작업이 수행된 텍스트를 전집이나 선집 출판의 전제조건”<sup>32</sup>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sup>33</sup> 여성문학 앤솔로지는 여성문학과 글쓰기의 전통, 여성문학 장의 변동을 고려한 독자적인 시대구분과 그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시대 개관, 작가소개, 원전 확정과 주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앤솔로지는 페미니즘 페다고지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앤솔로지로서 상징되는 정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시기 상이한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여성주의 앤솔로지 정전은 앞으로 문학수용공동체, 해석공동체,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의 변동에 따라 다시 쓰이거나, 새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젠더 앤솔로지, 퀴어 앤솔로지, 생태페미니즘 앤솔로지 등으로 확장되거나 세분되는 앤솔로지로나아갈 수도 있다. 여성주의 앤솔로지는 이후의 앤솔로지와 문학사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고규진, 『정전의 해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86-87쪽, 91쪽, 169쪽, 194쪽, 197쪽.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8-10쪽.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61쪽.

32 이병훈, 「불충분한 몇 가지 단상-문학과지성사 판,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사회』 통권 69호, 2005 봄, 320쪽.

33 고규진은 이를 ‘해석정전’이라 부르고, 문학사, 시선집의 편집자 서문, 작품해석 등을 해석정전의 예로 들고 있다. (고규진, 앞의 책, 197쪽)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여성’을 다시 읽고 쓰는 일』, 문학과지성사, 2021, 21쪽, 28쪽.

천정환·소영현·임태훈 외 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한국 현대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6-7쪽.

리타 펠스키, 이은경 옮김,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26쪽.

Showalter, Elaine, *American Women Writers from Anne Bradstreet to Annie Proulx*, Vintage Books, 2010.

### 논문

김명인, 「문학사 서술은 불가능한가-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민족문학사/쓰기」, 『민족문학사연구』 제43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8-30쪽.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 대의의 시간」, 『문학은 위험하다-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19, 233-259쪽.

김보명,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김보명 외, 『교차성×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김양선, 「탈주체, 탈중심 시대의 여성문학비평: 여성문학비평의 실천성 회복을 위한 제언」,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68호, 2008 봄, 96-110쪽.

\_\_\_\_\_,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39-65쪽.

김은석, 「1960~70년대 ‘여류’의 아비투스과 『여류문학전집』의 연합 정치」,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 155-190쪽.

김은하,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여성문학연구』 제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60-86쪽.

배은경, 「여성과 여성성에 대한 실존주의적 성찰-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한정숙 편,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 한길사, 2018, 275-312쪽.

백지연,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는 문학사」, 『창작과비평』 통권 184호, 2019 여름, 37-50쪽.

-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제56호, 민족문학사학회, 2014, 77-105쪽.
- 손성준, 「‘여류’ 앤솔로지의 다시 쓰기, 그 이중의 검열 회로: 『여류단편걸작집』 (1939)연구」, 『코기토』 제81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60-201쪽.
- 엄혜민, 「페미니즘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8, 1-37쪽.
- 이명호, 「30년 후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길버트와 구바의 19세기 여성문학사 서술과 여성문학 앤솔로지 검토」,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47-458쪽.
- 이병훈, 「불충분한 몇 가지 단상-문학과 지성사 판, ‘한국문학전집’ 발간에 즈음하여」, 『문학과사회』 통권 69호, 2005 봄, 314-328쪽.
- 이봉지, 「왜 여성문학사가 필요한가」,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4호, 한국프랑스학회, 2008, 1-20쪽.
- 허윤, 「여성문학사라는 역설-강신재 소설을 통해 살펴본 여성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민족문학사연구』 제72호, 민족문학사학회, 2020, 205-229쪽.
- 릴리언 S. 로빈슨,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텍스트의 반란-페미니스트가 정전에 반기를 들다」,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일레인 쇼월터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34-152쪽.

## Abstract

Constructing a Genealogy of Women's Literature in the Feminism Reboot Era  
: A Study of the Necessity and Content of Korean Women's Literary History and  
Anthology of Women's Literature

Kim Yangsun

This article attempts to create a genealogy of women's literature by exploring the need to write an independent women's literary history and the necessity, ideology, and content of an anthology of women's literature as a source for women's literature history.

First, I argue that an independent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should be written that encompass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s literature. Regarding the methodology for writing such a history, first, women must be understood as existing at the intersection of various social categories, such as nation, class, and sexuality. Second, women's literature is not a history of complete continuity and linear development; rather, it is a history of fissures, resistances, and heterogeneous voices that coexist.

Second, I propose a "feminism" canon as a canon of materials that archives the trajectory of the origi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s literature. I propose the following periodization, which focuses on the rise and fall of heterogeneous women's writings and voices competing within the dominant social order and the emergence of major writers and works that clearly demonstrate the transformation of women's literature history. (1) In the early modern era, the emergence of educated women of Choseon and the rise of the individual; (2) the emergence of socialist women and reflective female intellectuals in response to colonial reality; (3) gendered experiences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the Korean War and the emergence of bad woman; (4) the emergence of intellectual female subjects who criticized developmentalism and masculinity; (5) the emergence of hysterical writing by middle-class women and autobiographies by female laborers in response to gender repression that began in the 1970s; (6) the emergence of "writing as a movement" for interrogating the intersection of nation, people, and gender with the rise of the people's movement, literature, and women's liberation consciousness; (7) and the emergence of "gendered individual subjects" and "feminine writing" following the 1987 regime. Based on this periodization, this feminism anthology is able to encompass various forms of writing, such as novels, poems, plays, essays, declarations, memoirs, and more. The classificatory methodology of this open anthology differs from that of traditional anthologies in that it considers not only social changes but also the dynamics of women's literature, knowledge, and writing, and finds remnants and surpluses in the writing traditions of each era.

In conclusion, women's literary history and an anthology of women's literature, as starting points and sources of feminist literary pedagogy, are expected to benefit the writer-reader commons after the feminism reboot. And the feminism anthology proposed in this article can rewrite existing anthologies, or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new anthologies.

Key Words: women's literary history, feminism canon, counter-canon, women's writing tradition, constructing genealogy, archiving, feminism reboot

본 논문은 2022년 3월 23일에 접수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